한국청소년활동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Activity
2019. Vol. 05. No. 01. pp. 1~15

양육방식이 청소년진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김용진*, 권일남**

초 록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진학 만족도에 미치는 종단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데이터 중 중1 자료의 1차, 4차, 7차 자료이다. 종단연구를 위해 잠재성장 모형을 통해 양육방식의 초기 값과 기울기 그리고 공분산의 유의미함을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선형성장 추정치를 확인하였다. 또한 청소년 진학 만족을 변수로 하는 조건모형을 구성하여 양육방식이 청소년 진학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결론은 첫째, 부모의 양육방식의 초기 값과 변화율은 정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공분산은 부적인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부정적인 양육방식을 인식한 청소년이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인식한 청소년보다 양육방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둘째, 양육방식의 초기 값이 청소년진학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R값이 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초기 양육방식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청소년진학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양육방식의 변화율은 청소년진학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방식은 청소년진학만족도에 종단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포함하였다.

주요어 : 양육방식, 진학만족도, 잠재성장

Ⅰ. 서론 및 필요성

진로에 대한 탐색은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는 인간의 과업 중 하나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는 시기로 단순한 하나의 사건에 영

*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연구소, 연구원, yongkim95@naver.com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www.kci.go.kr

향을 받기도 하지만 장기간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Super(1988)는 진로발달 과정 중 15~24세 시기를 탐색기(exploration srage)라 말하며 학교활동, 여가활동,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여 직업탐색을 시도하는 시기라 정의 하였다. 이런 중요성으로 청소년 진로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에 대한 연구는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연구(어윤경, 2011), 진학과 전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학교와 가정 내 교육으로 연구(이상준, 2011), 고등학교-대학 간 전공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전소현 외 3, 2015) 등이 있다.

양육방식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일찍부터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특히 부와 모의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 연구(김미진, 1997; 배문주, 2004; 한지선, 2008),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유지연 외, 2017; 이지영, 2016; 박희현 외, 2014) 등이 있다.

이상에서 기술한 연구들은 각 내용의 유의미한 증명을 통해 진학과 양육방식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는 것에 유의미함이 있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는 횡단연구를 통한 분석을 행함으로 한 시점에서 실시한 관찰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여러 시점에 발생하는 인과과정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양육방식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이응택 외 1, 2012).

이러한 종단여구는 표본이 되는 대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되는 것이 어렵고 연속적인 조사를 위한 비용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연구자가 원하는 시점과 내용이 추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그렇기에 종단연구를 위한 패널조사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인되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진학이나 취업을 이룬 고등학교 이후의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의 특성상 중등교육기관에서 행하는 교육은 대부분 입시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교육부의 교육통계자료(2016)을 확인해보면 우리나라 일반고 졸업생의 78% 이상은 전문대학이상의 진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성에서 진학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는 청소년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시기와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선택하는 시기로 나누어 졌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을 선택하는 시기는 청소년 자신의 관심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정, 학교, 또래관계 까지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기 사회의 전 범위에 관심을 받는 시기이다. 청소년의 사회환경이 모두 주목하는 그리고 그 사회적 인정을 받는 대학을 선택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학습에 매진하는 모습의 결과로 선택

www.kci.go.kr

된 대학교의 만족도는 2016년 기준 51.0%가 '매우 만족'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하고 있다(통계청, 2018). 또한'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7)'의 데이터로 확인한 대학 만족도와 전공 만족도는 4점 척도(1=매우 만족한다, 2=만족한다, 3=만족하지 않는다, 4=매우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각각 2.19와 2.07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모습으로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는 종단여구는 그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여구라 하겠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학을 선택한 청소년의 진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7)'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중1 데이터 중 양육태도의 조사가 이루어진 1차(2010년), 4차(2013년), 7차(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최초 2,351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4차 원본유지율 89.7%, 7차 원본유지율 80.0%로 높은 수준의 원표본 유지를 보이고 있다.

양육태도에 대한 조사는 6차(2015년)에도 이루어 졌지만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시간에 따른 가중치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2. 측정도구 및 용어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데이터 중 부모의 청소년이 느끼는 양육태도를 측정한 변인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진학만족도를 구성하는 대학 및 전공 만족도-대학 만족도, 대학 및 전공 만족도-전공(학부, 학과)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매우 그렇다=1, 그렇다=2, 그렇지 않다=3, 전혀 그렇지 않다=4)를 사용하였으며, 감독변인, 애정변인, 합리적 설명변인, 대학 및 전공 만족도변인은 역 배점으로 적용하였다.

www.kci.go.kr

1) 양육방식

본 연구에서는 양육방식를 구성하는 변인으로 감독변인, 애정변인, 비일관성변인, 과잉기대변인, 과잉간섭변인, 합리적 설명변인을 설정하였다.

(1) 감독

감독 변인은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로 구성되어 있다.

(2) 애정

애정 변인은 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로 구성되어 있다.

(3) 비일관성

비일관성 변인은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께서는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시고 어떤 때는 안 치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부모님(보호자)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신다.”, “손님이 오거나 외출했을 때, 나에 대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로 구성되어 있다.

(4) 과잉기대

과잉기대 변인은 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나는 부모님(보호자)의 기대가 항상 내 능력 이상이어서 부담스럽다.”, “부모님(보호자)께서 나에 대한 걱정을 덜 하셨으면 좋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일보다 공부에 더 열성적이시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로 구성되어 있다.

(5) 과잉간섭

과잉간섭 변인은 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보통

www.kci.go.kr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해 하시며 내게는 못 하게 하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는 걸 강조하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원하는 일을 못 하게 하실 때가 많다.”로 구성되어 있다.

(6) 합리적 설명

합리적 설명 변인은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부모님(보호자)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 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보호자)께서는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신다.”,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그것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로 구성되어 있다.

2) 청소년진학만족도

본 연구에서 청소년진학만족도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을 선택한 청소년이 느끼는 대학과 전공만족도로 정의하였다. 변인은 “대학 만족도”, “전공(학부, 학과)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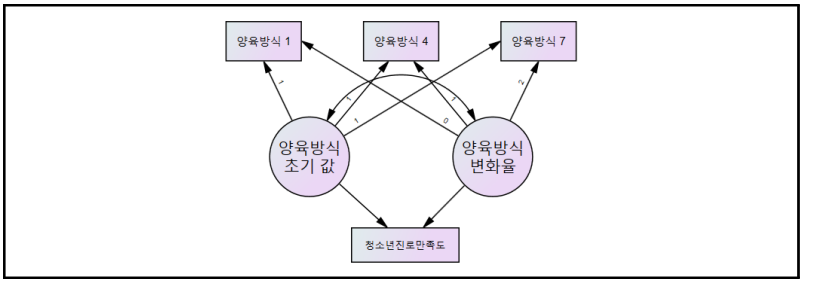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종단여구를 통해 양육방식이 청소년진학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도출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유의미한가?

둘째, 양육방식의 종단적 변화는 청소년진학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에 나타내었다.

www.kci.go.kr



[그림 1] 연구모형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21.0과 AMO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를 통하여 정규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였고, 변인간 다중공선선상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종단변인의 잠재성장모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 검증을 하였고, 초기 값과 변화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성장 조건모형을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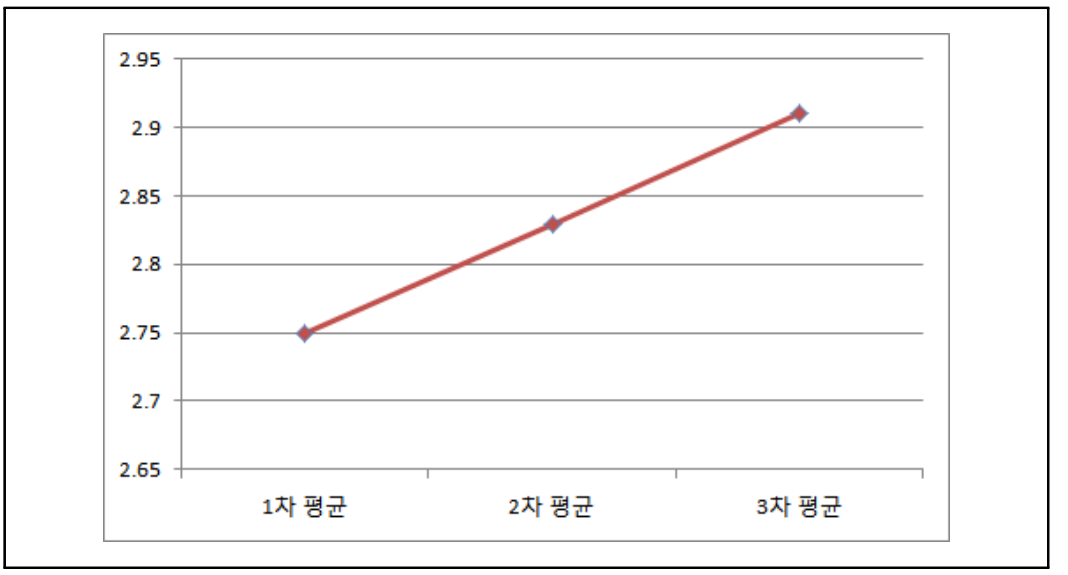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연구모형에 사용된 부모의 양육방식을 구성하는 감독변인, 애정변인, 비일관성변인, 과잉기대변인, 과잉간섭변인, 합리적 설명변인과 청소년 진학 만족도 변인을 구성하는 대학 만족도변인, 전공 만족도변인에 대한 3차 년도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정규성 가정을 위해 왜도는 절댓값 2미만, 첨도는 절댓값 7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본 연구 나타난 왜도의 범위는 -.609에서 .187이고 첨도의 범위는 -.356에서 1.573으로 정규성 가정에 만족하는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각 차시에 따른 편균을 확인해보면 1차 양육방식평균 2.75, 4차 양육방식평균 2.83, 7차 양육방식평균 2.91로 나타났다. 평균으로 확인하는 그래프는 연구에서 나올 추정치를 예상하는데 도움이된다. 이에 따른 그래프는 [그림 2]와 같다.

www.kci.go.kr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차년도	감독	2350	3.16	.650	-.609	.144
	애정	2348	3.01	.651	-.560	.225
	비일관성	2349	2.66	.679	-.104	-.204
	과잉기대	2349	2.37	.660	.026	-.356
	과잉간섭	2348	2.59	.629	-.101	-.183
	합리적설명	2349	2.82	.670	-.405	.135
1차 양육방식평균		2345	2.75	0436	-.111	.101
4차년도	감독	2108	3.09	.584	-.430	.568
	애정	2108	2.98	.552	-.277	.466
	비일관성	2108	2.82	.615	-.080	.019
	과잉기대	2108	2.55	.566	-.185	.117
	과잉간섭	2108	2.80	.606	-.223	-.024
	합리적설명	2108	2.76	.586	-.292	.409
4차 양육방식평균		2108	2.83	.368	.187	.107
7차년도	감독	1881	2.90	.608	-.297	.325
	애정	1881	3.06	.539	-.326	.468
	비일관성	1881	3.03	.643	-.329	-.251
	과잉기대	1881	2.75	.557	-.139	.086
	과잉간섭	1881	2.93	.590	-.193	-.138
	합리적설명	1881	2.82	.581	-.401	.754
7차 양육방식평균		1881	2.91	.390	.186	.060
진학만족도		1348	2.84	.486	-.478	1.573



[그림 2] 양육방식의 평균

www.kci.go.kr

2.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다중공선성의 무제를 판단하기 우해 변수가의 상관을 확인한다. 여기서 변수간의 상관이 .80이상이 아닐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변인간 상관의 최댓값은 .691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의 상관 또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의 값을 보이고 있다.

〈표 2〉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a1	b1	c1	d1	e1	f1	a4	b4	c4	d4	e4	f4	a7	b7	c7	d7	e7	f7
감독1 a1	1																	
애정1 b1	.426**	1																
비일관성 1c1	.135**	.336**	1															
과잉기대 1d1	.006	.247**	.490**	1														
과잉간섭 1e1	.059**	.295**	.555**	.664**	1													
합리적 설명 1f1	.332**	.639**	.250**	.169**	.179**	1												
감독4 a4	.313**	.193**	.155**	.076**	.088**	.139**	1											
애정4 b4	.200**	.372**	.226**	.123**	.189**	.255**	.475**	1										
비일관성 4c4	.110**	.190**	.277**	.186**	.243**	.141**	.098**	.287**	1									
과잉기대 4d4	-.042	.024	.129**	.305**	.258**	.020	-.146**	-.003	.441**	1								
과잉간섭 4e4	.066**	.127**	.188**	.219**	.309**	.063**	.030	.228**	.599**	.654**	1							
합리적 설명 4f4	.145**	.259**	.190**	.143**	.139**	.304**	.335**	.610**	.226**	.024	.152**	1						
감독7 a7	.217**	.184**	.109**	.059*	.084**	.120**	.299**	.210**	.103**	-.001	.060*	.200**	1					
애정7 b7	.139**	.325**	.162**	.096**	.148**	.221**	.240**	.426**	.201**	.061**	.154**	.303**	.390**	1				
비일관성 7c7	.094**	.162**	.191**	.127**	.162**	.115**	.107**	.236**	.338**	.145**	.218**	.171**	.054*	.364**	1			
과잉기대 7d7	-.010	.069**	.131**	.217**	.171**	.073**	.031	.129**	.230**	.313**	.248**	.072**	-.039	.228**	.531**	1		
과잉간섭 7e7	.027	.125**	.145**	.174**	.211**	.100**	.063**	.183**	.266**	.233**	.299**	.122**	.014	.359**	.619**	.691**	1	
합리적 설명 7f7	.116**	.255**	.156**	.142**	.159**	.273**	.175**	.309**	.170**	.062**	.137**	.349**	.318**	.626**	.283**	.178**	.264**	1
진학 만족도	.096**	.127**	.032	.015	.024	.043	.122**	.142**	.067*	-.014	.064*	.072**	.064*	.163**	.101**	.060*	.109**	.101**

**p < .01, *p < .05

www.kci.go.kr

3. 잠재성장모형

1) 변화모형 검증

무변화 모형이 변화 모형보다 좋은 적합도 지수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변인은 시간에 따른 변화궤적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단분석이 필요치 않다고 할 수 있다(박정주, 2011). 그렇기에 무변화 모형을 확인해보면 증분적합치를 나타내는 CFI=.569와 TLI=.569로 나타났다. 이는 불량한 수준의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절대적합치를 나타내는 RMSEA=.165로 .1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고 이는 불량한 수준의 값을 보이고 있다.

변화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해보면 양육방식의 증분적합치를 나타내는 CFI=.969와 TLI=.938로 양호한 수준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절대적합치를 나타내는 RMSEA=.063으로 .05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은 값을 보이고 있고 이는 괜찮은 수준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선형변화모형을 선택하여 변화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모형 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다.

〈표 3〉 모형 적합도

	카이제곱	자유도	CFI	TLI	RMSEA
무 변화모형	390.789***	6	.569	.569	.165
선형변화모형	30.862***	3	.969	.938	.063

***p < .000

2) 초기 값과 변화율 검증

양육방식의 선형변화모형을 확인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선형변화모형의 초기 값과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

		평균	분산	초기 값-변화율 공분산
양육방식	초기 값	2.750(.008)***	.103(.005)***	-.026(.003)***
	변화율	.080(.005)***	.019(.002)***	

***p < .000

초기 값과 변화율 평균과 분산 그리고 초기 값-변화율간의 공분산 모두 .000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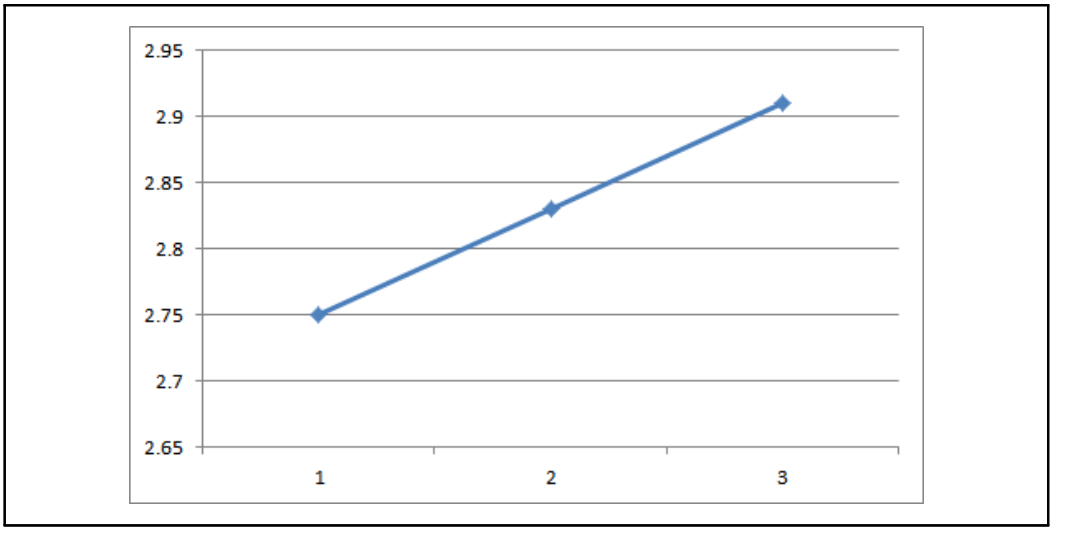
www.kci.go.kr

의 유의확률을 보이고 있다. 양육방식의 변화율이 정적인 변화(.080)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양육방식은 양호한 방향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기 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양육방식은 초기 값과 변화율은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 값-변화율의 공분산(-.026)이 부적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개인 간 간격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기준으로 양육방식의 추정 값을 산출하면 〈표 5〉와 같다. 이는 〈표 1〉의 기술통계에서 제시한 값과 일치하며 [그림 3]와 같다.

〈표 5〉 양육방식의 추정 값

	1차 양육방식	4차 양육방식	7차 양육방식
추정치	2.750	2.830	2.910



[그림 3]양육방식의 추정치

4. 청소년진학만족도의 조건모형

양육방식의 선형변화모형에서 공분산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청소년진학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의 조건모형에 따른 분석은 〈표 6〉와 같고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www.kci.go.kr

〈표 6〉의 결과 조건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7〉에서 제시한 결과에 의하면, 양육방식 초기 값은 청소년진학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β=.467, p 〈 .000). 양육방식 긍정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진학만족도 또한 높아진다. 그리고 양육방식의 변화율이 청소년진로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β=.954, p 〈 .000). 이 또한 양육방식의 변화율이 높을수록 청소년진학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6〉 조건모형 적합도

	카이제곱	자유도	CFI	TLI	RMSEA
조건모형	30.996***	4	.971	.927	.054

***p 〈 .000

〈표 7〉 조건모형의 분석 결과

경로			추정치	표준오차	C.R	P
청소년 진학만족도	←	양육방식. 초기 값	.467	.079	5.926	.000
	←	양육방식 변화율	.954	.260	3.663	.000

Ⅳ. 연구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양육방식의 초기 값과 변화율을 확인하고 청소년진학 만족도에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단계 양육방식의 잠재성장모형 중 선형변화모형을 확인하여 초기 값과 변화율을 추정하였다. 2단계는 양육방식이 청소년진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건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방식의 초기 값과 변화율은 유의미한 값을 보였다. 특히 변화율이 정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공분산이 부적인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부정적인 양육방식을 인식한 청소년이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인식한 청소년보다 양육방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의 성숙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이 인식하는 양육태도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변화한 것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이

www.kci.go.kr

해하는 모습으로 6년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양육방식의 초기 값이 청소년진학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른 교육포부의 차이가 있다고 나타난 선행연구(김경주 외, 2009)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진로관련행동과 애착 수준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의 관계가 정적임을 확인한 선행연구(이현주, 2010)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C.R(=5.926) 값이 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초기 양육방식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청소년진학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양육방식의 변화율이 청소년진학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방식이 청소년진학만족도에 횡단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종단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증명한 것으로 이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그리고 C.R(=3.663)의 정적인 값을 나타내고 있기에 양육방식 초기 값과 마찬가지로 정적인 종단적 변화율이 클수록 청소년진학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를 통한 제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언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양육방식을 구성하는 하위요소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어떠한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진학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후속연구에서 양육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세분화되어 나타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 청소년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으로 시점을 3개념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이 시점간의 간격이 3년으로 매해 수집되지 못한 단점을 갖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매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점간의 간격을 좁혀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어윤경 (2011). 청소년기 진로상담 만족도, 대학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분석: 대학 전공선택 요인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2(5), 1793-1811.

이상준 (2011). 고등학생의 진로교육 참여결정요인과 그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17(2), 385-408.

www.kci.go.kr

전소현·김서현·고영신·정수희 (2015). 진로교육 차원에서 고등학생의 전공적합성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고등학교 가정교과-생활과학대학 전공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7(2), 53-75.

김미진 (1997).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 정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배문주 (2004).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지선 (2008). 부모 간 양육태도의 일치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차이. 서울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지연·황예정 (2017). 부모의 양육방식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 특성: 중학생 3학년의 자아인식, 정서문제, 또래애착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4(1), 119-144.

이지영 (2016). 지각된 부모의 양육방식과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8(1). 217-244.

박희현·김진아·한귀례 (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교학회지. 17(3). 345-362.

이응택·이은경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유개도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죄책감을 매개변인으로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 53-70.

통계청. (2018),「사회조사」각 연도

김경주·송병국·박정배 (2009). 가정유형과 학업성적 및 부모 양육방식에 따른 청소년 진로포부 비교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Vol. 6, No. 1, p.113-135.

이현주 (2010). 부모의 진로관련행동 및 애착과 남녀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Vol. 23, No. 1, 41-59.

Super, D. E. (1988). Vocational adjustment: Implementing a self-concep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4), 351-357

www.kci.go.kr

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n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the Adolescents' Satisfaction of Entering School

Kim Yong-jin·Kwon Il-Nam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longitudinal effectiveness of the parenting style on the adolescents' satisfaction of entering school.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s the first, fourth, and seventh one of 'the Korea Child & Youth Panel Survey' data of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For the longitudinal study, the meaningfulness of the initial value, slope, and covariance of parenting style is confirmed through latent growth modeling and linear growth estimation is confirmed through this. In addition, the effect of parenting style on the adolescents' satisfaction of entering school is confirmed by establishing conditional model using the adolescents' satisfaction of entering school as a variable. The conclusions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initial value and change rate of parenting style showed static change, and covariance showed a negative value.

This suggests that, as time goes by, the understanding of youth who recognized negative parenting style was changed positively rather than that of youth who recognized positive parenting style, at an early stage. Second, the initial value of parenting style has a static effect on the adolescents' satisfaction of entering school.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C.R value is static confirmed that the more positive the understanding of initial parenting style is, the greater it influences the satisfaction of the adolescents' satisfaction of entering school. Third, the change rate in parenting style has a static effect on the adolescents' satisfaction of

www.kci.go.kr

entering school, which demonstrates that parenting style has a longitudinal impact on the adolescents' satisfaction of entering school, Finally,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included.

Keywords : parenting style, satisfaction of entering school, latent growth modeling

투고일 : 2019. 03. 03. 심사일 : 2019. 03. 22. 게재확정일 : 2019. 03. 31.

www.kci.go.kr